

최근 기업대출 연체율 및 부실채권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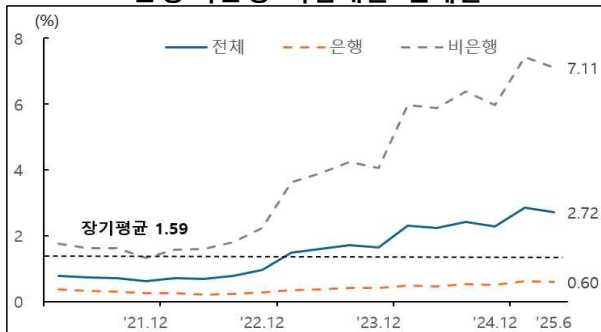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 기 은 (keithlee@kdb.co.kr)

- ◆ 국내 기업대출 연체율이 비은행·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며, 부실채권 비율 또한 중소기업과 건설업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
- ◆ 高환율 등 부정적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숙박음식업 및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한계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

□ 국내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속 상승하였으며, 특히 비은행 및 중소기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

- 국내 기업대출 연체율은 '25.6월 기준 2.72%로 '24년말(2.29%) 대비 0.43%p 증가했으며, 이는 코로나 발생 이전('19년말) 0.78% 대비 약 3.5배 수준
-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'25.6월 기준 0.60%로 '24년말(0.50%) 대비 소폭(0.10%p) 증가, 비은행은 '25.3월 기준 7.11%으로 '24년말(5.97%) 대비 큰 폭(1.14%p) 증가 - 은행과 비은행 모두 기업대출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
 - * 금융업권별 연체율('19년말→'24년말→'25.6월, %) : (은행) 0.45→0.50→0.60, (비은행) 1.62→5.97→7.11
 - ** 비은행은 저축은행, 상호금융(새마을금고 포함),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 기준
- 대기업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하회하나, 중소기업은 코로나 이전의 약 3배 수준
 - * 기업규모별 연체율('20.3월→'24년말→'25.6월, %) : (大) 0.29→0.03→0.22, (中·小) 1.06→2.75→3.24
- 특히, 부동산PF 관련 연체율*이 부실우려 사업장 정리·재구조화**, 지방·비아파트 위주의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
 - * 소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(%) : 1.19('22.12) → 2.70('23.12) → 3.42('24.12) → 4.39('25.6)
 - ** 유·의부실우려 사업장 정리·재구조화 실적(누적, 조원) : 3.1('24.9) → 6.5('24.12) → 9.1('25.3) → 12.7('25.6)

은행·비은행 기업대출 연체율

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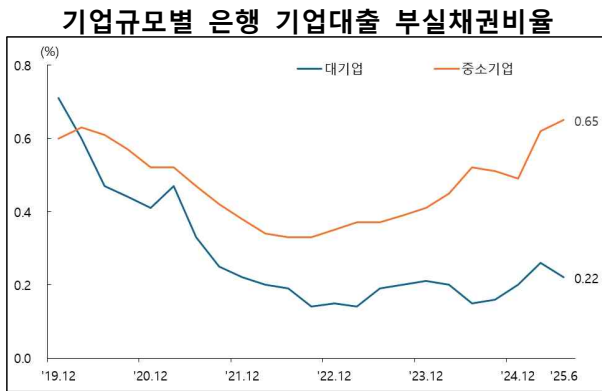
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연체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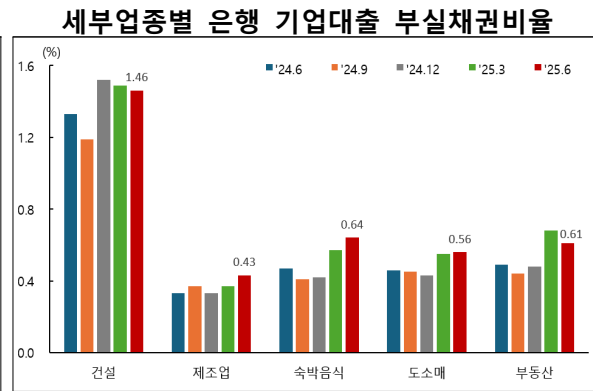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은행

□ 기업 부실채권비율도 중소기업과 건설업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숙박음식업 및 도소매업, 부동산업 위주로 상승

- '25.6월 은행의 대기업, 중소기업 부실채권비율은 각각 0.22%, 0.65%으로 '22.9월 (코로나 이후 최저치) 대비 높은 수준
 - * 기업규모별 부실채권비율('19년말→'22.9월→'25.6월, %) : (大) 0.71→0.14→0.22, (中小) 0.60→0.33→0.65
 - 특히, 중소기업의 경우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코로나 이전('19년말) 0.60% 대비 높은 수준
- '25.6월말 기준 건설업 부실채권비율이 1.46%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'25년 들어 숙박음식업 및 도소매업, 부동산업 위주로 부실채권비율* 상승
 - * ('24년말→'25.6월말, %) : (숙박음식업) 0.42→0.64, (도소매업) 0.43→0.56, (부동산업) 0.48→0.61



자료 : 한국은행



자료 : 한국은행

□ 高환율, 美 관세정책 등 부정적 거시경제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

- 高환율*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美 관세정책 본격화 등에 의한 수출 둔화**가 예상되어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우려
 - * 월말 환율(매대기준율, 원/달러) : 1,470.0('24.12) → 1,356.4('25.6) → 1,388.6('25.8) → 1,464.8('25.11)
 - ** 수출증가율 전망(당행 전망치, %) : 1.3('25) → △1.4('26)
-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* 비중이 '21년 14.9%에서 '24년 17.1%로 증가한 가운데, 부동산업(39.4%) 및 숙박음식업(28.8%)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편
 - *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으로, 영업활동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을 의미
- 특히, 부동산PF 연체율이 '22년부터 상승하면서 건설업을 위주로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제조업 대출자산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